

## 고령사회 속 기독교 노인복지의 화두\* - “안티 에이징과 웰 에이징”을 대하는 기독교 윤리적 시선

김성호 (한국성서대학교, 조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노화태도
- III. 안티 에이징: 노화혐오, 노화불안, 노인차별
- IV. 웰-에이징: 성공적 노화
- V. 노인에 대한 성경적·신학적 고찰
- VI. 나가는 말: 기독교 노인복지 실천을 위한 함의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9.43.01>

---

\* 본 연구는 2018년도 한국성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 ABSTRACT •

---

The issue of Christian elderly welfare in aged society: Christian ethical perspective on “anti-aging and well-aging”

Assistant Prof. Kim, Seongho(Korean Bibl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ristian ethical meaning and the practice of ‘aging’ in the Christian social welfare field. Social discourse and ethical support for aging in aged society are necessary. Whether longevity and aging society is a blessing or disaster depends on how individuals and society view aging and old age. At present, our society has a strong negative perception toward aging, so-called ‘anti-aging’. As a result, in the social welfare field, programs for the elderly mainly focus on preventing or overcoming aging rather than successfully aging. Such negative attitudes as anxiety, fear of aging and death may amplify the sense of loss for the present life and cause moral problems by creating distortions and attachments to life. Whereas, the Bible describes the process of aging as a process in the providence of creation order, and the old age is seen as a blessing, not as decline or loss, but as a time when God’s grace is given. Based on the biblical understanding of aging,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viewpoint to overcome the old stereotypes and misinformation about aging while respecting the culture and trends of modern society. Furthermore, this study discussed ways to promote positive generational exchang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e presented a practical alternative to Christian social welfare for the elderly and church service.

**Key words:** Aged Society, Christian Social Welfare for Elderly, Ant-aging, Ageism, Well-aging.

---

## I.

기대수명의 증가는 축복인가 재앙인가? 노화는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인가, 아니면 피하고 극복해야 할 질병인가?

세계적으로 인구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UN과 WHO를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여러 나라가 노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50년이 되면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가 20억 명(21%)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화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UN은 2002년 마드리드 선언문(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ing, MIPAA)을 발표했다.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은 향후 국가별로 고령화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 평가하는데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행동권고 부분에서 노인과 발전, 노년까지의 건강과 안녕증진,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확보 등을 주제로 설정하고 분야별로 다양한 행동지침을 권고하고 있다. 당시 제시된 11개 핵심 주제는 “노화과정에 있는 노인들의 고유한 상황과 특수한 환경, 노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노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했다.<sup>1)</sup>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사회를 맞이했으며,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중이다. 1960년 2.9%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는 2000년에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09년 7월에는 10.7%에 달했다. 그리고 2017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면서 17년 만에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노인인

1) 정경희·정은지·남현주·최혜지,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이행실태 및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16.

구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2026년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넘어갈 예정이며, 2037년 30%, 2058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85세 이상의 초고령 인구 구성비는 2015년 51만 명(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하였으나 2065년에는 505만 명(11.7%)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sup>2)</sup>

이 같은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개인의 삶의 양식은 물론 우리사회 제반 영역에 걸쳐 큰 변화와 복지수요를 초래했다. 특히 최근의 노인복지 예산의 증가는 부인할 수 없는 추세인데 연금개혁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제도 개선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sup>3)</sup> 그러나 유년인구가 줄고 노인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미래의 노인 돌봄 부담의 가중으로 인한 세대갈등이 우려되기도 한다. 또한 최근 들어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미용을 포함한 노화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의료수요가 확대되고 있다.<sup>4)</sup> 한편 인구고령화의 진전은 실제 노인 개인의 삶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노인의 상당수는 경제적 어려움, 의료 및 돌봄 수요 증가를 비롯하여 삶의 여러 부분에서 편견, 소외, 학대, 차별 등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들에 노출되기 쉽다.<sup>5)</sup>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구 노령화를 경험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노인에 대한 복지와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관심이 노력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여 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노인에 대한 차별도 함께 늘어가고

2)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 14% 이상일 때 고령사회, 20%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하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 (2016).

3) 장인수·김홍석, “인구 집단 측면의 복지 수요는 사회복지 예산 비중 증가를 견인하였는가?” 『보건사회연구』 제38권1호(2018), 387.

4) 이금숙·박소현, “저출산-고령사회 지역의료수급 예측,”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8), 91-93.

5) 원영희, “노인차별 피해경험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제21호(2005), 320.

있다. 본 연구는 현대의 문화와 트렌드를 존중하는 동시에 늙어감에 대한 구시대적인 고정관념과 잘못된 인식을 극복하고 노화를 자연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성공적 노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성서적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 II.

장수와 고령사회가 축복인가 재앙인가는 개인과 사회가 늙어감(노화과정)과 노년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다. 고령사회와 100세 시대를 맞아 늙어감(aging)에 대한 사회적 담론과 윤리적 뒷받침이 필요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는 ‘안티 에이징(anti-aging)’, 즉 늙어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그 결과 사회복지분야에서도 노인을 대상으로 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주로 노화극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노화를 극복해야할 대상으로 여기는 문화는 결국 노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이는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넘어 늙음과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현재의 삶에 대한 상실감을 증폭시키고 삶에 대한 왜곡과 집착을 낳아 도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한편, 안티 에이징과는 달리 ‘웰 에이징(well-aging)’은 육체적 노화를 단순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늙어가는 것 그 자체를 수용하면서 노년의 시기를 긍정적인 자기 변화의 시간으로 받아들여려는 삶의 양식과 태도를 의미한다.

인간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 심리, 사회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이나 상태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주관적인 인식을 갖는 것을 노화태도라고 하는데 이는 나이를 먹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자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노화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개인마다 다르다. 개인이 이전에 갖고 있던 노인에 대한 부정적 견

해를 자신에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노화태도가 형성되기도 하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노화태도는 다른 노인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해서 결과적으로 노인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부정적인 노화 태도는 노인의 신체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비노인층과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노화태도를 갖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나이가 들수록 심화된다. 이는 노화를 외모와 건강의 악화 및 경제력과 지위 등이 상실되는 과정으로 인식하여 그 결과 노인이 되면 노쇠하고 의존적인 존재가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매스미디어를 포함한 사회문화적으로 외모지향주의와 연령차별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여성노인에게서 더욱 심각하다.<sup>6)7)</sup> 이에 더하여 노화와 노인을 주제로 하는 노년 연구도 노년기에 겪는 어려움에 집중하는 경향성을 보여 아직도 노화를 극복되어야 할 문제로 인식하는 연구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그 결과 부정적 노년 이미지를 확산할 위험이 있다.<sup>8)</sup>

한편으로는 노화(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기존의 노화에 대한 부정적 관념이나 수동적 태도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론으로 창의적 노화(Creative Aging)라는 개념을 주창했다. 노화를 절망의 관점이 아니라 지혜, 통합, 포용, 보살핌 등 긍정적이고 치유적인 개념으로 바라보

6) 송유진, “외모지향의 연령파괴: 중·노년 여성들의 외모 가꾸기,” 『한국사회』 제13집2호(2012), 83.

7) 양정혜, “TV 광고가 재현하는 고령화 시대의 노인,”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7권 1호(2011), 99.

8) 정진웅, “반연령주의적 문화 실천으로서의 노년 연구: 고령화시대의 노년 연구에 관한 제언,” 『보건사회연구』 제34권 3호(2014), 456.

는 창의적 노화는 고령화 시대의 성공적 노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다.<sup>9)</sup>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는 2012년 부정적 어감이 강한 ‘노인’이라는 용어를 대체할 이름을 공모하여 ‘어르신’을 ‘노인’ 대신 사용하는 공식용어로 선정했다.<sup>10)</sup> 민간영역의 예를 들면, 미국의 유명 패션잡지 ‘allure’의 편집장 Michelle Lee는 2017년 8월 호부터 더 이상 ‘anti-ag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Lee는 “anti-aging’이란 표현은 노화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 “이름 “젊음의 싱그러움을 인정한다는 것이 곧 늙어가는 과정이 추하게 변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sup>11)</sup> 이후 뉴욕 타임즈의 Ashton Applewhite는 여성들이 ‘젊어지기’를 위해 경쟁하면 할수록 자신 스스로 더 실망감에 빠지게 되며, 어린나이 혹은 어려보이기를 통해 다른 여성들의 순위를 매기는 것은 연령차별주의, 성 차별주의, 외모지상주의 및 가부장제를 강화하게 된다고 비판했다.<sup>12)</sup>

### III. : , ,

노화를 통제하려는 야망과 시도는 초기 문명 이후의 인간 문화의 일부였다. 불멸에 대한 집착은 기원전 약 3000년에 메소포타미아 남부를 통치한 길가메쉬 왕에 관한 바빌론의 전설의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하다. 아시

9) 임성윤. “창의적 노화(Creative Aging)의 개념에 관한 고찰,” 『문화와 정치』 제4권4호 (2017), 232-233.

10) 어르신이라는 지칭어의 제안은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는 노인(노년)을 주체로 승인하지 않고 객체의 자리에 묶어놓는 용어가 되며 노인 스스로가 자신을 지칭할 때는 사용할 수 없는 용어가 되는 문제가 있다. 위의 논문, 458.

11) Michelle Lee. “Anti-Aging” Will No Longer Use the Term, Allure Magazine 2017. 08.14. <https://www.allure.com/story/allure-magazine-phasing-out-the-word-anti-aging>

12) Ashton Applewhite. Working to Disarm Women’s Anti-Aging Demon. 2017. 10. 10. <https://www.nytimes.com/2017/10/10/style/women-looks-ageism.html>

아에서는 기원전 3세기경 중국의 도교 신자들이 수명을 늘리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했다. 이처럼 수천 년 동안 인류는 노화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시도를 이어오고 있다. 그 예로는 연금술, 제로코미(gerocomy)<sup>13)</sup>, 주술, 동물의 생식기 이식, 태아 또는 신생아의 조직세포 주사, 호르몬 요법,식이보조 및 특정 식품 섭취, 다양한 물질에의 노출, 그리고 성형수술에 이르기 까지 셀 수 없이 다양하다. 기대수명이 연장되고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오늘날의 노화방지에 대한 노력은 의학계를 비롯하여 상업분야에 이르기까지 어느 때보다 번성하고 있다.<sup>14)</sup> 더 나아가서는 인간을 복제하거나 재생하여 노화가 아닌 죽음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자행되고 있다.<sup>15)</sup>

Anti-aging(항노화)라는 개념은 1980년대 미국에서 “healthy people(건강한 사람들)”이라는 예방의학 캠페인 때 등장한 이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항노화는 노화에서 출발한 개념인데 국제노년학회는 인간의 생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 심리, 환경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 형태를 ‘노화’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항노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념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된 개념이 부재하며, 항노화는 학술 용어라기보다는 상업인 용어로서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sup>16)</sup> 항노화산업은

13) 노인들이 젊은 남녀들과의 호흡이나 성교를 통해 젊음을 찾으려는 시도를 의미하는 단어임.

14) Fishman, J. R. et al. “Anti-aging science: The emergence,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a discipline” *Journal of Aging Studies* 22(4) (2008), 295.

15) 미래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테크놀로지적 인간의 모든 유형을 통틀어서 포스트휴먼(posthuman)이라고 부르며, 이에 관한 현대 철학적 사조를 포스트휴머니즘이라 칭한다.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재생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창조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창조주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교만이다. 김동환, “테크놀로지 시대의 인간에 대한 신학적 비평,” 『Canon & Culture』 제10권 2호(2016), 98-99.

16) 김택식, 『글로벌 선도산업을 위한 항노화산업 실태 조사분석 활성화방안 연구』(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12-13.

노화 및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료, 개선하기 위한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 프로그램, 서비스제공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산업으로서 향후 빠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sup>17)</sup> 오늘날 항노화 산업이 번창하는 이유는 노화를 ‘씩어가는 질병’으로 여기며, 항노화의학(Anti-aging Medicine)만이 노화로 인한 문제를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 모두가 ‘치료’해야 하는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sup>18)</sup> 한편 노화방지 의학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관련 산업의 성장에 비해 실제 임상적용에 대한 근거중심의학(evidence based medicine)의 측면에서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며 윤리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sup>19)</sup> 또한 지나친 노화방지에 대한 관심은 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을 낳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

노화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부정적 이미지는 노인혐오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노령화는 노인들의 삶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들로 이어질 수 있다.<sup>20)</sup> 노인차별은 나이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

17) 채동렬,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한 항노화산업의 동향과 전망,” 『경남발전』 제135호 (2016), 73-80.

18) Powell, J. & Chen, S, “The problem of biology and anti-aging: A critical commentary,” *Trends in Medicine*.(2017).

19) 이은주, “노화방지의학의 허와 실,” 『대한의학협회지』 제50권3호(2007). 228-233.

20) 그동안 많은 선진국들은 1991년 유엔의 노인을 위한 원칙(Principles for Older Persons) 및 2002년 마드리드 국제고령화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MIPPA)에 근거하여 노인인권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한국은 산업화 진전 및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제적 측면에서 노인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인 ‘브릿지플랜 2020’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체계 강화 등을 국가의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01년 설립 이후 3차례에 걸쳐 정부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권고하면서 노인인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노인인권 관련 사회적 관심 및 정책제도가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노인인권 개선 과제가

그 사람을 늙었다고 인지하면서 그 사람의 나이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에 기초하여 대할 때 발생한다.<sup>21)</sup> 이것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개인적 차원의 노인차별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인식이 노인들의 개별적인 사회관계에서 소외나 부당한 대우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사회적 차원의 차별은 각종 사회정책이나 제도에서 노인층을 소외시키는 것으로 이는 노인들의 인권을 포함한 기본권을 위협할 수 있다.<sup>22)</sup>

젊음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노화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사회에서는 노인과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태도가 확산될 수 있고 이는 중년기의 나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노화를 피하고자 하는 욕구를 유발한다.<sup>23)</sup> 이 같은 사회 환경 속에서 신체적 특성에 근거한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은 외모지상주의 혹은 외모차별주의적인 사회현상과 더불어 노화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화시키고 있다.<sup>24)25)</sup> 노화에 따른 노인차별에 대한 경험은 성별에 따라 다른데, 특히 여성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직장과 사회로부터 아름답거나 우아해야 한다는 암묵적 요구를 느낀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여성 노인의 성공적인

---

산적해있다. 원영희 외, 『노인인권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7), 3.

21) 노인 차별의 원인은 첫째, 개인심리차원, 사회차원, 문화적 가치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 심리차원으로는 권위적 성격, 선택적 인지, 합리화, 무지, 노인 혐오를 들 수 있다. 신학진, “한국중년의 노화불안요인이 노인차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통권55호(2012), 34.

22) 천희란·김일호, “노인차별(ageism)의 사회경제적 관련요인과 건강영향.” 『한국노년학』, 제33권3호 (2013), 602.

23) 이유리, “노인생애체험이 중년기 성인의 노화불안에 미치는 효과.” 『노인복지연구』, 통권46호(2009), 194.

24) 신학진·전상남, “노인의 이미지와 노인차별경험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8권 6호(2009), 1170.

25) Granleese, J. & Sayer, G. “Gendered ageism and lookism: A triple jeopardy for female academics,” *Women In Management Review*. 21.(2006), 501.

노화는 경제적 독립과 더불어 외모지상주의라는 장벽에 부딪힌다. 여성 노인은 노인차별주의, 성차별주의, 외모차별주의의 교차점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sup>26)27)</sup> 여성에게 노화란 남성에 비해 더 많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 될 수 있으며 사회의 연령차별주의에 성차별 주의(sexism)를 더해 자신의 노화를 더 불안한 것으로 느끼게 된다. 따라서 여성이 경험하는 노화불안은 여성의 삶의 질과 정신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sup>28)</sup>

노화불안은 나이가 드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경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의미하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으로,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질뿐만 아니라 비노인층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노화불안이 높을수록 개인의 행복감을 저해할 수 있으며,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려 성공적 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up>29)</sup> 더 나아가 노화불안은 개인의 관념적 또는 인식적 차원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노인들을 대할 때 부정적이거나 차별적인 행동으

26) Jyrkinen, M., & McKie, L. "Gender, age and ageism: experiences of women managers in Finland and Scotland. Work," *Employment and Society*, 26(1)(2012), 77.

27) Tietie, J. & Cresap, S., "Is lookism unjust?: The ethics of aesthetics and public policy implication,"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19(2)(2005), 32.

28) 사회문화적으로 요구되는 여성의 미에 대한 기준 때문에 여성들은 노화에 대해 남성보다 더 불안을 느끼고, 그 결과 여성들의 자아개념은 신체적 매력이나 젊은 외모와 관련이 있어 남성에 비해 노화로 인한 신체적 변화에 대해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외모와 젊음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늙는다는 것은 사회문화적 미의 기준으로 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외모나 신체에 대해 불만족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자존감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노화에 대한 지나친 불안은 노화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 과도한 화장, 피부관리, 성형수술, 지방흡입, 다이어트 등의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 신경일, "성인여성의 노화불안,"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20권3호(2015), 330.

29) 노화불안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외모지상주의 등의 현대사회의 특성에 의해 등장하게 된 개념이라는 점에서 노화불안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고령사회를 대비하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의 대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김재희·김옥, "노인의 노화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통제감의 매개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42권4호(2014), 234.

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sup>30)</sup> 여기에 노인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이 추가되면, 노인의 부정적 자기낙인이 더욱 심화 될 수 있다.<sup>31)</sup> 노인들이 경험하는 차별은 노인의 자아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자아존중감 저하로 이어진다. 즉, 노인이 차별을 받는다고 느낄 때에, 그 원인으로 자신의 외모가 초라하고 존중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sup>32)</sup>

김옥의 노인차별 실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노인차별을 경험하는 데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요인들에는 주관적 나이, 주관적 생활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순으로 나타났는데, 노인 스스로가 자신을 ‘자신의 나이에 비해’ ‘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지, 혹은 ‘젊은 편’이라고 느끼는지에 따라 노인 차별경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즉, 노인 스스로의 외모평가가 자신의 노화태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sup>33)</sup>

#### IV. - :

상기한 바와 같이 노화를 두려운 것이나 피해야 할 것으로 여기면 궁극적으로 노인을 비생산적이고 무가치한 부담스러운 존재로 보는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불러온다. 따라서 노화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통해 노화에

30) 신학진, “한국중년의 노화불안요인이 노인차별에 미치는 영향,” 37.

31) 이다지·김준표·남석인,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제72권2호 (2017), 327.

32) 노인의 자아 이미지는 노인 스스로에 대해 갖는 생각과 믿을 그리고 연상을 통해 느껴지는 감각적 인상의 총체이다. 안준희·김승용, “노인의 차별경험이 자아이미지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 경제적 참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29권4호(2009), 1658.

33) 한편 이 연구에 참여한 노인 응답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느끼는 주관적 나이 항목에 대해 일반적으로 보다 젊게 생각하거나 그 나이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옥, “노인차별의 실태 및 관련요인에 관한 탐색적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제23권2호(2003), 30.

대해 객관적이거나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sup>34)</sup> 긍정적인 노화태도를 갖는 것은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인데, 이는 개인의 노화태도가 자신의 생활습관이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소통과 사회통합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sup>35)36)</sup>

노화로 인한 상실 및 쇠퇴, 변화, 발달의 차원 중 긍정적인 변화와 발달에 초점을 둔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고찰은 고대로부터 이어져 일찍이 서구문화권에서 발달했으며 1986년 세계노년학회에서 '성공적인 노화(successful aging)'에 대한 개념이 처음 등장한 이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sup>37)</sup> 국내에서도 2000년 대 이후에 들어서 서구적인 가치관과 개념에 의존해온 성공적인 노화연구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사회와 문화에 맞는 성공적인 노화이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sup>38)</sup>

성공적 노화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 중 하나는 Erickson의 생애주기 이론<sup>39)</sup>이다. Erikson은 인간발달의 최후 단계인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이

34) 김화선·최은정·양정남, “노화사실 인지정도와 노화불안에 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32호(2009), 137.

35) 조아라·오희영, “중장년 성인과 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 『성인간호학회지』, 제29권 1호(2017), 41.

36) 이미진, “중노년층의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학』, 제64권1호 (2012), 102.

37) 신학진·전상남,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화요인과 주관적 건강의 영향,” 『노인복지연구』, 제46호(2019), 30.

38)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는 매우 다각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신체 건강, 경제 안정, 사회지지, 사회 참여 및 봉사, 자율성, 자아수용, 타인의 인정, 자기관리, 가족관계 등이다.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건강, 소득수준, 배우자 여부, 사회참여 등이었는데, 특히 건강, 경제 상황, 그리고 배우자 유무가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신영, “국내의 성공적 노화연구에 관한 일 고찰,” 『복지행정논총』, 제16집1호(2006), 119.

39) Erikson은 인간의 발달을 제1-8단계까지 나누고 각 단계들을 ‘심리적발달’과 ‘심리사회적발달’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한다. Erikson이 제시하고 있는 1-8단계까지의 주기들은 각 단계별 사회적 위기를 지니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따라서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다음 단계를 맞게 된다고 보았다. Erikson은 제7단계 ‘생성감 대 정체(generativity vs. stagnation)’와 제8단계 ‘자아통합 대 절망(ego integrity vs.

인생을 마무리 짓는 독특한 해결방법으로 ‘자아통합 대 절망의 위기’ 이론을 제시했다. Erikson에 의하면 자아통합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고 살아온 인생을 수용하여 두려움 없이 죽음에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아통합은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심사숙고한 다음 일생 동안의 갈등과 실패 그리고 실망을 자아 속에 포함시킬 수 있어야만 획득이 가능하다. 따라서 노년에 자아통합을 성취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사실에 대해 부정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여 자신의 인생에 만족해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그들은 성공으로 노화한 사람에게 해당되는데 그들이 현재의 상황과 과거의 사건을 통합하고 현재의 결과에 만족하므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삶에서 노화에 따른 상실이 현저하게 일어날 때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인 ‘보상을 수반한 선택적 최적화이론(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theory, SOC)’<sup>40)</sup>은 선택(selection)과 최적화(optimization) 및 보상(compensation)의 3가지 요인이 성공 노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평생 발달과정에 관한 모형에 근거한 SOC 이론은

---

despair)’을 노년기와 접목하고 있다. 특히, 제8단계에서 나타나는 노인들의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특징들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장년기 때의 경험과 특징들이 노년기의 긍정 또는 부정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특히 노년기를 ‘자아통합 대 절망’으로 설명한 것은 노화에 따른 신체적 기능의 쇠퇴, 직업에서 은퇴, 사회적 역할의 상실에서 오는 사회적, 심리적 갈등을 통합하고 극복하는 것이 전인건강을 위한 노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Erikson은 자신의 이론 제8단계에서 ‘지혜는 자아통합 대 절망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을 때 나타나는 덕목이라고 했다. 이것은 노인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 얻게 되는 인생에 대한 통찰이며 자신이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아왔다고 인정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죽음을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종말로 인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김창수, “노년기 죽음불안에 대한 Erikson의 생애주기이론: 제8단계 ‘자아통합 대 절망’의 관점 연구,” 『생명과 말씀』 제18권(2017), 139-185.

40) SOC 이론은 Baltes와 Baltes가 제안한 것이다, Baltes P. B. & Baltes, M. M.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uccessful aging: 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In P. B. Baltes and M. M. Baltes (Eds.), Successful aging: Perspective from the behavioral sciences (1-34). (Cambridge, UK: Cambridge Univ. Press, 1990).

개인이 노화과정에서 겪는 손상과 기능감퇴에도 불구하고 상실한 것을 보상하고 주어진 능력에 적합한 활동을 선택하여 보유한 기술을 최적화해서 성공적인 노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sup>41)</sup> 실제로 상실은 노년기에 들어서 겪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상실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관심, 가치, 건강, 기술 및 자원상태, 그리고 인생경험에 따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독특한 형태의 선택과 최적화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때 선택이란 연령증가와 함께 기능의 감소나 감퇴가 일어나면 몇몇 특정 영역을 선택하고 다른 영역을 무시하여 높은 수행을 유지하려는 책략이다. 최적화는 자신의 잠재능력을 활성화하고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택한 영역의 수행을 최적화시키는 행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상은 생물학적, 사회적, 정신적, 인지적 기능의 상실로 문제해결 상황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질 때 특정한 학습행동이나 다른 방법으로 쇠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책략들이다. 그러므로 성공적으로 노화하기 위해서는 성인후기의 쇠퇴과정에 맞추어 선택영역을 축소시키고 그것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선택된 영역의 최적화를 돕는 효과 책략을 개발하는 것이다.<sup>42)</sup>

Erickson 그리고 Baltes와 Baltes가 개인의 발달단계에서 노화를 설명했다면, Carstensen<sup>43)</sup>은 노인의 사회관계적 차원의 성공적 노화전략을 소개했다. Carstensen이 제시한 사회정서적 선택이론(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은 노인들이 자신의 사회 연결망을 선택적으로 축소시킴으로써 해서 성공적인 노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인들은 정서적

41) 오두남, “노인의 성공노화 구조모형 - 선택·최적화·보상 전략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제42권3호(2012), 311.

42) 장휘숙, “성공적 노화,” 『스트레스연구』 제15권4호(2007), 328-329.

43) Carstensen, L. L. A life-span approach to social motivation. In J. Heckhausen & C. Dweck (Eds.), *Motivation and self-regulation across the life spa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소수의 친밀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냄으로써 즐거움을 나누는 긍정적 정서경험을 극대화하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과 교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정관념과는 다르게 이 이론은 대다수의 노인들이 정서적 절망상태를 경험하지도 않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정서적으로 친밀한 친지들과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의식적으로 사회적 연결망을 선택적으로 축소시킴으로써 성공 노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 미국립보건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는 2007년부터 발전시켜온 ‘21세기 성공노화전략(Aging well in 21st Century)’을 수정하여 소개했다. 이는 노화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첫째, 노화 과정의 역동성을 이해하기, 둘째, 노화의 진행에 맞춰 성인의 건강, 복지 및 독립성을 향상시키기, 셋째, 노화관련 연구 지원의 세 가지 분야로 나뉜다. 노화과정에 대한 역동성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세부 전략으로는 노화의 생물학과 질병 및 장애의 예방, 진행 및 예후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적, 대인 관계 및 사회적 요인이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sup>44)</sup>

이상 소개한 바와 같이 성공적 노화에 대한 전통적 접근은 주로 노년기의 신체적 활동 및 정신적 건강과 관련한 연구들과 노화에 대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연구들로 양분화 되어 진행되어왔다. 최근 들어서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가 다학제적인 관점에서 두 측면을 통합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성공적 노화에 대한 개념화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와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

44) 미국에서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1960년대부터다. Hode, R. "Updated strategic directions: A roadmap for progress," *National Institute of Aging(NIA)*. (2016).

해서도 연구결과 등이 매우 다양하거나 중복되고 있다.<sup>45)</sup> 한편 노화는 특정한 사회·생태학 맥락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회가 달라지면 성공적 노화의 기준도 달라진다.<sup>46)</sup> 특히 서구와 한국 연구 사이에 커다란 문화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개인별로도 성별, 연령, 경제적 계층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sup>47)</sup> 따라서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개인이 그가 속한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스스로 인식하는 주관적인 안녕(subjective well-being)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sup>48)</sup> 주관적 안녕이란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및 생활만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처음 두개의 구성요소들은 개인의 정서 측면에 해당하는 반면, 후자는 인지적·판단적 측면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세 가지 개념 모두 타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자신의 판단에 기초한 개인의 정서 상태나 생활의 질에 의한 판단이라는 것이다.<sup>49)</sup> 안녕감(well-being)에서 주관적 안녕감은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느끼는 정서로 삶의 질과 대인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특히 중년과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있어서 심리적 안녕감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sup>50)</sup>

성공적 노화에 관한 주요 이론과 접근 방법을 종합해보면, ‘노화의 진행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상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는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노화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45) 안정신 외, “성공적 노화 연구의 비판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제24집3호(2011), 35.

46) 장휘숙, “성공적 노화에 이르는 길-성공적 노화의 개념과 전략”,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07), 20.

47) 안정신 외, “성공적 노화 연구의 비판적 고찰”, 43.

48)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성공적 노화와 동일한 의미로 인식되는 개념으로 주관적 안녕 혹은 심리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이 있다.

49) 장휘숙, “성공적 노화에 이르는 길-성공적 노화의 개념과 전략”, 16.

50) 허철무·안상현, “신체활동 참여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심리적 안녕감 및 성공적 노화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제53권6호(2014), 359.

인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그러므로 ‘늙어감’에 대한 신학적 해석 및 기독교 윤리적 의미를 살펴보는 일은 기독교 사상과 윤리가 서구 사회는 물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시작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점을 감안할 때 필요한 과정이다.

## V.

## 5).

노인신학이란 무엇인가? 신학계에서 노인신학이란 말은 아직 개념 정 의조차도 제대로 시도되지 않았을 만큼 생소하고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 다. 김영동은 노인신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노인의 존재 의의와 목적을 밝히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체계화하는 것으로서, 노인이 주체가 되며 노 인을 위하는 신학이라고 정의한다. 노인신학은 소외되고 주변화 된 노인 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연관 짓는 것으로 노인들이 성경을 읽고 자신과 세계를 해석하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가도록 하는 신학이어야 한다.<sup>52)</sup> 따라서 노인에 대한 신학적 고찰을 위해서는 성서가 의미하는 노인에 대 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구약성경에서 노인이란 뜻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자켄(**זָקֵן**)’인데 형 용사로 쓰일 때는 ‘늙은’을 뜻하며 명사로 쓰일 때는 ‘노인’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늙은,’ ‘나이 먹은,’ ‘노년의,’ ‘장로,’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자 켄’은 젊은 사람과 대비되는 뜻으로 인생의 노년기를 맞이한 사람을 지칭 한다(창43:27; 창35:29; 욥42:17; 신28:50; 신28:50; 출10:9; 수6:21; 대하 36:17; 예3:13). 또한 자켄은 부족이나 공동체에 속한 남자들의 집단으로 서 장로들을 의미했다. 성경에 등장하는 장로의 형태를 보면, 이스라엘의

51) 노인에 대한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는 강용산 교수의 논문을 주로 참조하였다. 강용산, “노인복지에 대한 신학적 접근” 『성경과 신학』 제46권(2008), 115-148.

52) 김영동, “교회 노인학교와 노인선교의 전망,” 『장신논단』 제21권(2004), 315-316.

역사에서 성읍의 지도자들이 장로로 불렸다(신19:12; 21:3; 수20:4; 룻4:2; 삼상16:4; 창50:7; 민22:4; 수9:11). 자켄, 즉 인생의 연륜을 통해 경험과 지혜를 소유한 장로들이 사회적, 종교적, 또는 정치적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외에도 구약성경에서 노인, 노령을 뜻하는 단어로 ‘세바 토바(שֵׁבַט וַיָּבִיא)’를 들 수 있다. 이는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좋은 흰머리라는 뜻(창42:38; 왕상2:6; 잠16:31; 사46:4)으로 의미상 ‘자켄’과 크게 다르지 않게 쓰이고 있다.

구약 성경에서 노년기는 창조질서 안에 내재된 특별한 범주이자 삶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존경과 영광이 함께하는 시기로 나타난다(잠16:31; 레19:32).<sup>53)</sup> 또한 노인은 존경과 공경의 대상으로 이해된다(레19:32; 욥32:4). 노년을 의미하는 단어 ‘야시스(yasis)’는 ‘나이든’이라는 뜻과 함께 ‘존경할 만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십계명 가운데 제5계명(출20:12)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룬다. 그 외에도 구약은 여러 곳에서 부모를 공경하되 경홀히 여기지 말 것을 아울러 강조하고 있다(레19:3; 신5:16; 27:16).

한편, 구약 성경에는 신체의 노화로 인한 노인의 부정적인 모습이 묘사되기도 한다. 노인은 연약하고 우울하며(시30:10), 눈이 어두워지고(창27:1; 48:10; 삼상3:2; 전12:2), 귀가 먹고(삼하 19:35),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왕상1:1-4), 육체적으로 감각적으로 쇠약(전12:4-5)해진다. 이는 노화로 인한 상실과 소외의 고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하는 삶을 제시한다.<sup>54)</sup>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노인이 늙었다는 이유로 부정적이거나 열등하게 취급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

53) 이기양, “노인의 긍정적 이미지와 노인신학의 발전방향,” 『신앙과 학문』 제7권2호(2002), 68.

54) 배성권, “고령사회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이해,” 『통합연구』, 제19권1호(2006), 166-167.

은 아름다운 것(잠20:29)이며 존중을 받을 이유가 되었다(잠17:6).

이외에도 창세기(1:27)의 Imago Dei(Image of God) 신학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음을 강조한다. 노인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귀한 존재(in correspondence to a divine image as a divine prototype)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육신이 노쇠하고 외모가 변했다고 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sup>55)</sup> 하나님의 형상은 젊고 아름다운 모습만이 아닌 주름살과 백발로 상징되는 노년의 모습도 하나님의 특별한 형상을 지닌 축복의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sup>56)57)</sup>

신약 성경에서 ‘노인’의 의미로 주로 쓰이는 단어는 ‘프레스부스(presbu)’<sup>58)</sup>인데 이 단어는 ‘더 큰 존경’ 의미와 결합되어 ‘장로’와 같은 지위의 의미도 갖지만 ‘자켄’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는 ‘더 나이가 많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지 연령상의 남녀 노인’을 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무난하다. 디도서 2장에서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구절은 노인들이 삶의 모범됨을 의미한다. 한편 구약에서 강조하는 부모 공경의 정신은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도 나타난다(마15:4; 19:19; 엡6:2; 골3:20; 롬 1:30; 딤후3:2).

55) 박광선, “노인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한국노년학』 제11권2호(1991), 166.

56) 노원석, “한국 부모부양의 세대갈등에 따른 성경적 노인이해와 상담,” 『성경과 상담』 제7권(2007), 50.

57) Kimble, M.A. McFadden, S.H. & Ellor, J.W. “Aging, Spirituality, and Relig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95), 418-421.

58) 남자 노인의 경우는 ‘presbuvth(프레스부테스)’, 여자 노인은 ‘presbuvti(프레스부티스)’로 교회 내의 직분을 칭하기도 한다(디도서 2:2-3). 한편 ‘장로’를 의미하는 ‘프로스뷔테로스(presbuvtero)’는 ‘프레스뷔테스(presbuvth)’의 비교급으로 ‘더 늙은, 손위의, 더 중요한, 더 존경받는(사람)’을 뜻한다.

## VI. :

우리사회가 급격한 고령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겪는 사회 변화에 능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적극적 수용을 바탕으로 한 노인복지 정책과 실천방안이 필요하다. 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자칫 개인적 불안을 넘어 세대 간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노화와 노년에 대하여 기존의 의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관점에 성서적 가르침을 더하여 기독교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적용하고자 수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실태와 함께 노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문제점과 성공적 노화의 개념들을 소개했고 성서에 근거한 신학적 전통 속에서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관점을 살펴보았다. 성서를 통해 살펴본 노인의 의미를 종합하여 요약하면, 노인은 연약함으로 표현되기도 했지만 노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기쁨과 축복된 삶의 과정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기간이 된다. 또한 노인은 삶의 지혜를 소유한 존경과 공경의 대상이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sup>59)</sup> 따라서 성서적 가르침에 따라 노화를 자연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교육하며, 기독교사회복지 실천과 교회의 사회봉사에 적용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중요한 전제가 된다. 우리나라의 전문사회복지실천이 시작단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사상과 윤리관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아온 점을 감안할 때, 노화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는 고령화 사회의 기독교사회복지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노인을 위한 기독교사회복지와 교회의 사회봉사에 실천적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노인편견과 연령차

59) 김남식, “노인에 대한 성경적 이해,” 『상담과 선교』, 제4권3호(1996), 21-25.

별주의를 넘어서 노화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성서에서 밝히고 있는 노화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자연스러운 노년의 모습을 제시해야 한다. 즉 더 이상 노화를 ‘피해야 할 쇠퇴의 과정’으로 여기고 노년을 ‘상실의 시기’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주어질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교회와 사회 속에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존엄한 존재로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둘째, 노인의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의 노인혐오나 차별을 줄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사회의 노인편견과 차별을 노인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 스스로가 먼저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된 시기를 살고 있는 은혜로운 존재라는 의식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교회와 기독교사회복지 영역에서의 교육과 의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들의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가르치고 노년기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의 욕구에 맞는 재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 노인들은 비·공식적 사회적 참여 활동을 통해 자신감, 성취감, 사회적 지지를 얻게 되며, 이는 내적·외적 자아를 강화시켜서 노인들이 차별경험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킨다.<sup>60)</sup> 교회를 비롯하여 기독교 사회복지 기관들이 노인차별을 예방하고 노인들의 다양한 사회적 참여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단지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지역 공동체 구성원, 그리고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연령을 초월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 젊은 세대 역시 노화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세대 간 소통과 공감대를 늘려 상호작용 속에서

60) 김미경, “노년기 영성회복을 위한 성경적 모델: 모세와 갈렙을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제19권(2012), 91.

협력해 나가야 한다. 특히 노인의 삶에 있어 노화불안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사람의 관심과 지지는 물론 교회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인 개입이 요구된다.<sup>61)</sup>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노인을 비롯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들이 고립된 수용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즉 그들이 사는 곳에서 돌봄을 받고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 즉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를 도입하고 있다.<sup>62)</sup>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기본적인 공감대 형성과 함께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상황과 욕구분석, 그리고 시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커뮤니티 케어 도입을 위한 민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교회나 기독교사회복지 기관들이 노화에 대한 성서적 가르침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에서 노인복지를 실천해야 한다.

넷째, 죽음을 가까이 둔 노인들의 영적 욕구에 대응해야 한다. 특별히 노년기는 죽음을 가까이 경험하며 영적인 욕구가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설교나 교육을 통해 영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교육이 요구된다. 특히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노화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태도는 성공적 노화로 이어지고, 이는 궁극적으로 존엄한 죽음으로 이어진다. 인생에서 죽음을 가까이 직면하고 있는 시기에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인생에 대해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며 안녕감을 경험하기

61) 노화불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라는 관계적 요소와 우울이라는 정서적 요소, 그리고 노화대처라는 자기수용적인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편적인 개입보다는 노인의 전체 삶을 조망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다지·김준표·남석인,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 343.

62) 커뮤니티 케어는 우리말로 ‘지역사회 돌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2019)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노화와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깊게 녹아있다. 그 결과 죽음에 관한 교육, 문화와 제도 역시 미비하며 죽음 준비에 소홀하다. 노화와 더불어 죽음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s)<sup>63)</sup>, 호스피스, 유언장 작성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편안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sup>64)65)</sup> 죽음을 형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이면 의료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죽음과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죽음 이해와 임종 방식을 확산시키고 관련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확대해야 한다.

63)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s, AD)'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 및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의사를 평소 건강할 때에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김명숙·강문희·김연옥, "지역사회 재가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도 영향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2호 (2018), 240-241.

64)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무의미한 연명환자의 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말기환자 5만 명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다가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한다. 2018년 2월 연명의료 중단 시행으로 약 1년간 3만 6000명이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했지만 한해 23만 명이 만성질환으로 사망한다. 즉 만성질환자 10명 중 9명은 죽음을 치료하다가 굴복당하는 셈이다. 서울신문, 2019. 01. 10. "존엄한 죽음을 말하다"

65) 이다지·김준표·남석인,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 327.

## 참고문헌

- “ ” 『 』 46 (2008), 115-148.
- “ ” 『 』 4 3 (1996), 14-29.
- “ ” 『Canon&Culture』 10 2 (2016), 91-125.
- “ ” 『 』 18 2 (2018), 240-247.
- “ ” 『 』 19 (2012), 74-99.
- “ ” 『 』 21 (2004). 305-326.
- “ ” 『 』 23 2 (2003). 31-35.
- “ ” 『 』, 42 4 (2014), 233-260.
- “ Erikson ” 『 』 18 (2017), 139-185.
- 『 』 ( , 2014).
- “ ” 『 』, 32 (2009), 135-165.
- “ ” 『 』 7 (2007), 43-57.
- “ ” 『 』 11 2 (1991), 162-178.
- “ ” 『 』, 19 1 (2006), 149-177.
- “ ” 『 』 13 2 (2012), 83-111.
- “ ” 『 』 20 3 (2015), 329-346.

34 『기독교사회윤리』 제43집

- “ ” 『 』  
55 (2012), 33-64.
- “ ” 『  
』 18 6 (2009), 1169-1179.
- “ ” 『  
』 46 (2019), 29-50.
- “ ” 『  
: ” 『 』 29 4  
(2009), 1645-1663.
- Cooney, T.M., “  
” 『 』 24 3 (2011), 35-54.
- “TV ” 『 』 7 1  
(2011), 72-106.
- “ ” 『  
』 42 3 (2012), 311-321.
- “ ” 『  
』 21 (2005), 319-339.
- 『  
( , 2017).
- “ ” 『 』 7 2  
(2002), 55-85.
- “ ” 『  
』 (2018), 91-93.
- “ ” 『  
』 72 2 (2017), 323-348.
- “ ” 『  
』 64 1 (2012), 101-124.
- “ ” 『 』 16 1  
(2006), 117-136.
- “ ” 『 』,  
46 (2009), 193-214.
- “ ” 『 』 50 3 (2007), 228-233.

· “ (Creative Aging) ” 『 』 4 4 (2017), 228-233.

· “ ?” 『 』 38 1 (2018), 365-395.

· “ - ” 『 』 (2007), 15-30.

· “ ” 『 』 15 4 (2007), 325-329.

· “ ” 『 (MIPPA) 』 ( , 2012).

· “ ” 『 』 34 3 (2014), 452-476.

· “ ” 『 』 . 29 1 (2017), 41-50.

· “ ” 『 』 135 (2016), 73-80.

· “ (ageism) ” 『 』 , 33 3 (2013), 601-615.

· “ ” 『 』 53 6 (2014), 357-369.

· 『 ( ) 』 (2019)

· 2019. 01. 10.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306005003>

· “ : 2015~2065 ” (2016).

Baltes P.B. & Baltes, M. M.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uccessful aging: 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In P. B. Baltes and M. M. Baltes (Eds.), *Successful aging: Perspective from the behavioral sciences* (1-34). (Cambridge, UK: Cambridge Univ. Press, 1990).

Carstensen, L. L. A life-span approach to social motivation. In J. Heckhausen & C. Dweck (Eds.), *Motivation and self-regulation across the life spa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Fishman, J. R. et al. "Anti-aging science: The emergence,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a discipline" *Journal of Aging Studies* 22(4) (2008), 295-303.

Granleese, J. & Sayer, G. "Gendered ageism and lookism: A triple jeopardy for female academics," *Women In Management Review*, 21.(2006), 500-517.

Hode, R., "Updated strategic directions: A roadmap for progress," *National Institute of Aging(NIA)*. (2016).

Jyrkinen, M., & McKie, L. "Gender, age and ageism: experiences of women managers in Finland and Scotland. Work," *Employment and Society*, 26(1)(2012), 61-77.

Kimble, M.A, McFadden, S.H. & Ellor, J.W. "Aging, Spirituality, and Relig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95), 418-421.

Powell, J. & Chen, S, "The problem of biology and anti-aging: A critical commentary," *Trends in Medicine*.(2017).

Tietie, J. & Cresap, S., "Is lookism unjust?: The ethics of aesthetics and public policy implication,"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19(2)(2005), 31-50.

Michelle Lee, "Anti-Aging" Will No Longer Use the Term. Allure Magazine 2017. 08.14. <https://www.allure.com/story/allure-magazine-phasing-out-the-word-anti-aging>

Ashton Applewhite, Working to Disarm Women's Anti-Aging Demon, 2017. 10. 10, <https://www.nytimes.com/2017/10/10/style/women-looks-ageism,h>

논문투고일: 2019년 2월 28일

심사게시일: 2019년 3월 13일

게재확정일: 2019년 4월 22일

---

• 국문 초록 •

---

aging( )

100

( )

(anti-aging)',

(well-aging)

주제어:

---